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그림엽서로 본 9년

불자들의 관심·애정이 만든 결실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고 길을 묻는 이에게 불법의 길을 안내하겠다는 다짐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가 벌써 9살이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불교>는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다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현대불교>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9년의 자취를 캠페인, 포교, 문화, 정보화, 출판, 교계언론선도 등 여섯 분야로 나눠 그림엽서로 모아 보았습니다. <편집자>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 7대회장 취임법회 및 제 7차 정기총회 공고

누대에 걸쳐 사자상승 법맥을 계승하며 과거의 계통을 되살리고 의존과 맹종의 누습을 개혁하여 호젓한 복전을 되찾고자 비구니회의 결성을 시방에 공포한지 어느덧 30여 성상을 훌쩍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불교현대화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비구니총림의 건립을 발원하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합리화와 중생제도를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비구니회의 초발심 서원이 해를 거듭할 수록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향기롭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을 뜻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그래서 밝습니다. 바로 전국 7000여 비구니스님들이 시공간을 넘어선 처처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현실 속에 꽃피우는 힘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의 원력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야말로 더 멀리 더 오래가는 진정한 향기 일 것입니다. 곧 우담발화가 그것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조직적 모임의 결성을 간구했던 초창기의 발원을 시념으로 현실 속에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고 또한 자긍심을 배양해주는 일이 곧 전국비구니회관의 개관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9일 대망의 개관법회를 가진 전국비구니회관은 작금의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재배출의 산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과 여성교회는 물론 장애우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사회구현 등 수행과 교육과 포교와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실천도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한국불교의 종합도량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한국불교가 우뚝 서는 큰 몫을 전국비구니회관이 담보할 것입니다.

전국비구니회관은 이제 7000여 한국비구니스님들의 개인이나 단체기관 또는 사찰단위의 수행과 교육 대중교회의 힘을 결집해 그 역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비구니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확대회의 갖고 30여 년 전 조직 결성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한국불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일보 전진할 수 있는 용량을 배가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항상 새롭고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아야 한다는 지순한 선조들의 지혜와 자비심을 받들어 비구니회의 중지를 바로 세우고 아울러 비구니회관의 발전적 운영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비구니 총림의 건립을 발원했던 당초의 원력을 오늘날의 비구니회관에 고스란히 담아낸 역대 회장단과 집행부 소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비구회 운영을 담당할 제 7대 회장으로 문은사 명성스님을 확대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이를 계기로 전국 7000여 비구니스님들을 모시고 새 회장으로 추대된 명성스님의 취임교회를 올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새 시대, 새 불교의 요람이 될 비구니 회관건립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신 7000여 전국비구니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새 회장 취임 고불식에 수회 동참하시어 비구니회관의 면모도 살피시고 아울러 보다 나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방세계를 중생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으로 퍼져 나가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 ▶ 행사주제 : 전국비구니회 제7대 회장 취임 법회 및 제 7차 정기총회
- ▶ 행사일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22일 (수) 오전11시
- ▶ 행사장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 전국비구니회관 법문사 만불전
- ▶ 문의전화 : (02) 3411-8103-7 / FAX (02) 3411-8108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